

2. 이스라엘 민중운동의 목표와 사상

사도행전의 저자는 물론 신학작업을 잊지 않았다. 사도행전은 대부분 베드로와 바울로의 입을 빌린 연설내용을 담고 있다.

① 베드로 연설은 유대인을 상대하므로 구약 인용이 많다.

② 바울로의 설교는 이방인을 향한 것이다. 그중에서 아테네 아레오파고 법정에서의 연설(사도 17, 22~31)은 전형적으로 이방선교적이기는 하지만 바울로 편지의 내용과는 부합되지 않는다. 그리고 바울로의 편지 안에는 자신을 변호하는 긴 연설들도 여러 번 나온다. 또한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의 마지막 긴 연설(사도 7, 1~53)도 사도행전에서는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왜 저들이 순교를 당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면서 동시에 초대 예수 민중 선교공동체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. 그러나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바울로의 입을 빌린 설교의 단편 속에서 초대 예수 민중의 선교의 원형이 발견된다.²²⁾

우선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~4장에 네 편이 나온다. 그것의 공통점은 ① 예언의 성취이고, ② 그것은 예수의 죽음당함과 부활로 나타났고, ③ 부활로 예수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었으며, ④ 교회에 나타난 성령은 그리스도 승리를 드러낸 표적이며, ⑤ 메시아 시대는 재림시대의 준비기간이라는 것이다.

한편 바울로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.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케리그마(Kerygma)와 다른 점은 ① 예수를 ‘하느님의 아들’이라고 단언한 것, ②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, ③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다. 이 바울로의

22) 닷드(C.H. Dodd), *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s*, 채위역, 『說敎의 原型과 그 발전』, 한국기독교문화원, 1983.

설교가 바울로가 말한 케리그마의 골격이며, 바울로 서신의 신학적 내용과도 부합된다.

3. 민중사실

루가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다 지방, 사마리아 그리고 세계로 발전해가는 ‘구속사’(救贖史)에 있다.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 창시적 계승자들이 갈릴래아 민중임을 분명히 한다.

예수가 승천할 때 천사들이 그를 우러러보는 자들에게 “갈릴래아 사람들아!……이 예수는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”(사도 1, 11).

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성령(氣)강림의 날을 교회 탄생의 날로 본다. 그런데 그 사건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났는데, 그 사건의 주역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“이 사람들이 다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!”(사도 2, 7)라는 운집한 사람들의 경탄의 말로 나타낸다.

갈릴래아 사람들인 첫 제자들의 핵심은 모조리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쳤다. 그렇게 비겁하던 그들이 도도히 예루살렘에 ‘잠입’하여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 전세계에 모인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(Diaspora)이 운집한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간 것이다. 그 자리에서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다. 갑자기 세찬 ‘바람’이 불더니 집안(oikos)에 가득 찼다고 한다(사도 2, 2). 이것을 동양적인 표현으로 하면 (氣)가 꽉 찼다는 말과 같다. 저들은 영(푸뉴마)으로 꽉 차서 전설

행동
사건
관계
인연
물길